

전남도, 이번엔 공모 제대로 하려나

'지역 성장 전략사업' 21개 시·군서 24개 사업 신청 사업당 100억 규모 매년 4개 선정...공정성 신경 써야

전남도가 추진중인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에 대한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뜨겁다.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전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도 중앙부처 공모에 견줘 훨씬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발굴, 육성한다는 애초 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동부권 통합청사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드러난 어설픈 준비 과정과 부실한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공모한 결과, 신청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시·군 간담회에서는 순천·나주·무안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신청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시·군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발전 사업을 결정하면 전남도가 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당 100억원 규모로 매년 4개의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광양과 고흥, 장흥군만 2개의 사업을 신청했고 나머지 시·군은 대표적 사업 1개를 선정,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5개 시의 경우 ▲해남 맛집 30리 조성(목포) ▲청년이 모이는 활력있는 여문지구 조성(여수) ▲

시민 융·복합 공유센터 조성(순천) ▲남평 역권역 관광화(나주) ▲어린이 놀이문화 플랫폼(광양) ▲시를 품은 광양 섬진강 블루존 구축(광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나머지 지역은 ▲슬로시티 창평면 문화생활공간 조성(담양) ▲체류형복합문화공간-스테이션 1928(곡성) ▲화엄 4색이 어우러진 블루투어 프로젝트(구례) ▲블루투어 문화 복합단지 조성(고흥) ▲전남형 드론산업 표준화 플랫폼 구축(고흥) ▲독량만 오봉산 생태웰빙산업 육성 프로젝트(보성) ▲힐링과 창업이 샘솟는 매력도시 화순 ▲남도 문화관 건립 및 사색의 정원 조성(장흥)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장흥) ▲국도최남단 강진역사 주변 웰니스 관광거점 조성(강진) ▲빛, 숲, 놀이로 재생하는 두륜산 도립공원(해남) ▲흥과 열을 나누는 미래성장동력 '영암문화 혁신 프로젝트'(영암) ▲도농 연결형 4차

산업 플랫폼 구축(무안) ▲자연과 함께하는 소확행 여행 체험단지 조성(함평) ▲이모빌리티 월드 조성(영광) ▲황룡강 옐로우 가든 조성(장성) ▲완도 주도 상록수림 주변 관광자원 개발(완도) ▲블루투어와 문화예술의 향연, 아리랑 굿(good) 거리 조성(진도) 등의 사업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전남도는 이들 사업들에 대한 서면평가(5일)를 거쳐 12개 사업으로 압축한 뒤 평가위원회(10명)를 통한 발표 평가(10일)를 거쳐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등을 반영, 평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 아이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안병하 사업회' 사무총장 고소

5000만원 위자료 청구까지 '전두환 비서' 지칭 비난 글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비서'로 지칭하며 시정 비판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광주시민을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주연(53)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6일에는 이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 시장은 자신을 '전두환 비서'라고 부르고 시정 관련 비판 글을 잇따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상습적인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씨는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라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인 4월 11일부터 20여 차례 이상, 시장 취임(2018년 7월)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북 등에 게재해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재부장관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씨가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기 때문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전두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출신이 시장을 '전두환 비서 이용섭 시장'이라고 부르며, 시정을 비판하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민주국가에서, 다른 도시도 아닌 광주에서 이 정도 비판도 시민이 못하느냐"고 성토했다.

이씨는 이어 "이 시장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수 차례 해명했지만, 언제 단 한번이라도 광주시민에게 사죄나 자기고백을 한 적 있느냐"면서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과 정산'을 가르쳐야 하나, 그때다 어쩔 수 없었는데"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단순 비난이 아니라, 박광태 전 시장을 광주형일자리 대표로 선임하는 등 이 시장의 업무 추진 행태를 두고 비판을 한 것"이라며 "시민의 정치 비평, 정치인 비판과 비난은 폭 넓게 수용되어야 한다. 소송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 일가정양립센터...24시간 운영

"아근이나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 돌보기 어려울 땐 언제든지 걱정 말고 맡기세요. 광주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가 2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대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행됐다.

긴급아이돌봄센터는 부모가 직장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렵거나 긴급 돌보미를 구해야 할 때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 센터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영아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둔 시민이나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 등 누구나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은 시간당 1000원,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시간당 3000원이다.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주간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 후 사전예약하고, 야간에는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 후 사전예약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전화(062-714-3635)로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긴급아이돌봄센터를 5개 지구 규모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후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정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영미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내빈들과 헌관 제막식을 하고 있다.

광주시, 4개 대학에 '학점인정제 과정' 첫 개설

게임 개발·웹툰·그래픽 영상 등 현장실무 중심 교육

광주시는 지역 4개 대학과 연계해 '문화콘텐츠아카데미 학점 인정제 과정'을 9월부터 첫 개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예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대학별 운영 과정은 ▲전남대-게임개발 이론 및 실습 ▲조선대-2D·3D애니메이션 현장실무/웹툰 후보정 ▲호남대-그래픽 영상기초 ▲광주대-3D애니메이션(모델링기초) 과정 등이다.

실무교육은 지역 문화콘텐츠기업의 현장 전문 강사진이 맡는다. 그동안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꼽아왔다. 실력 있는 인력 공급만 약속된다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성장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밝혀왔다.

광주시와 진흥원은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지금까지 53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지역 기업에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 4월에는 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 바로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행정 관계자들로 산·학·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기업과 대학이 조율해 커리큘럼을 구체화하고, 각 과목별로 기업의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신용보증재단 업체 보증료 등 수천만원 안 돌려줘

시 감사, 부정적 인사 등 6건 적발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업체 보증료·공탁금 수천만 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부정적 업무 6건을 적발하고 행정상 시정(3건)·주의(2건)·개선(1건) 조치했다.

재단은 최근 5년간 신규 직원 21명의 승급 처리를 잘못해 689만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근속 연수의 제한 없이 호봉만으로 6급

직원들의 승진 기준을 불합리하게 만들었다.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220개 업체의 환급 대상 보증료 4144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채무자 2명의 부동산 가압류 공탁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15건(56만원)의 회수·환급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차례 해외연수를 하면서 14명의 숙박비·운임 등 여비 7894만원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전남스마일센터 목표에 건립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전남스마일센터가 목표에 들어선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스마일센터 조성 사업비 3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스마일센터는 강력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역별로 설립한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기관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4곳에서 운

영중이다. 전남 스마일센터 설립비 확보로 전남 지역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전남스마일센터' 유치를 위해 법무부·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